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0년 4월 19일(주일) 제1291호

4월 25일(토)-26일(일) 예배당 주일예배 재개 기대



4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현장예배에 참석을 원하는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등록교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당분간 드라이브인 워십 병행

온누리교회가 4월 25일 '토요주일예배'를 시작으로 국내 모든 캠퍼스에서 현장예배를 재개한다. 새벽기도회는 4월 27일(월), 주중예배는 5월 4일(월) 주간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토요주일예배 시간은 서빙고와 양재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4시/부천 1부 오전 11시 30분, 2부 오후 2시(대학청년)/수원과 대전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남양주 오전 11시 30분/평택 오후 4시, 인천 1부 오후 4시, 2부 오후 7시(장소임대관계로 시작 시기 미정)/강동 오전 11시 30분/양지 오전 9시(5월 2일부터 시작)이다.

토요주일예배를 포함한 일요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주중예배 등 현장예배에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안전예배 참석 절차'(예약 시스템)를 거쳐야 한다. 첫째,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등록교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휴대폰 번호로 교인 인증을 하면 바코드가 생성되는데, 이 바코드를 다운로드해서 휴대폰에 저장해야 한다. 현장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이 바코드가 있어야 교회 출입이 가능하다. 둘째, 바코드 인증을 받은 다음 참석할 예배를 화면 안내에 따라 예약한다. 예약한 예배 시간에만 교회 출입할 수 있다. 예배 예약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주일까지 할 수 있다. 셋째, 교회에 도착하면 의무적으로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교회 입구에 준비된 스캐너를 통해 등록교인 확인(바코드 스캔)을 한다. 넷째, 본당 입장하기 전에 바코드 링크로 들어가 'QR 스캔가기'를 눌러 활성화 시킨다. 다섯째, 본당 입장 이후에는 본인이 앉을 의자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찍고 나서 착석하면 된다. 성도들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예배는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예배 예약 잔여좌석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일예배 예약은 토요일과 일요일 중 1번만 예약할 수 있다. 중복 참석은 불가하다. 온누리교회 미등록자와 새가족 등록을 원하는 성도, 바코드 스캔이 안 되는 성도는 임시 안내데스크를 방문해서 별도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온라인 예배 및 모임도 병행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CGNTV로 참여하면 된다. 주일 1~7부 예배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는 CGNTV 홈페이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2면 예배 안내 참조)로 참여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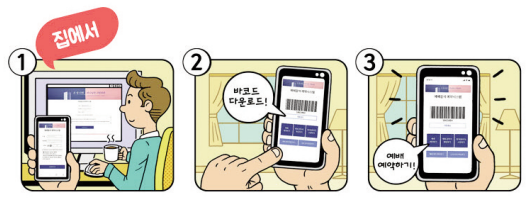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는 예수님의꿈아이, 꿈이자라는땅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파워웨이브 오전 9시, 11시 30분에 차세대 유튜브 채널에서 드린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예배는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4시, 홀리스타 새벽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 드린다.

영어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일본어예배 오후 2시, 중국어예배 오후 2시, 프랑스어예배 오후 2시 각 외국어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개인영성관리를 위하여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에도 매일 참여해야 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263, 3220
양재 02-570-744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등록교인 확인 및 예배예약>

1. 등록교인 인증 : 예배 참석 전 추후 공지되는 링크로 들어가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교적인증 바코드를 생성합니다.

2. 바코드 저장 : 생성된 바코드를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가 확인되어야 예배 당일 교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바코드는 언제든지 본인인증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적 바코드 생성시 주의사항
교적에 등록된 생년월일 8자리와 전화번호가 틀릴 경우 인증번호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최신 사진과 최신 전화번호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아이스쿨(http://ischool.ionnuri.org)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하고
어려울 경우 공동체 순장님을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배 예약 : 바코드 인증후 참석할 예배를 화면의 안내에 따라 결정하고 예약합니다.
예약된 예배 시간에만 교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 예배예약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09:00 ~ 주일까지



<교회입장 및 예배참석>

4. 체온 검사 : 교회 도착 후 안전을 위해 체온 검사를 진행합니다.

5. 등록교인 확인 : 교회 입구에 준비된 스캐너에 교적인증 바코드를 찍어 확인을 합니다.

6. QR 인식 활성화 : 본당 입장 전 링크로 들어가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QR스캔 가기를 눌러 활성화 합니다.

7. 좌석 QR 코드 스캔 : 본당 입장 후 앉을 의자에 붙은 QR코드를 찍고 앉습니다.

8. 임시 안내데스크 방문
- 교회 입장시 바코드 스캔이 안될 경우 임시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주세요.
-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않은 등록교인은 임시 안내데스크에서 별도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기획_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4-6면 **특별기고_** 코로나19와 장애인 7면 **기고_**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시리즈 8-9면



지난 부활주일, 양재동 현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워십에 참여한 성도들이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드라이브인 워십!’

9시, 11시 30분, 13시 50분, 16시 … 서초구 양재동 현주차장

온누리교회가 지난 주일(12일) 서초구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부활주일예배를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드렸다.

드라이브인 워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형식의 예배이다. 지정된 주차장에서 차량 라디오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방식이다.

지난 주일 드라이브인 워십은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4부 오후 4시, 5부 오후 6시에 진행됐다. 라디오 주파수 FM 88.5MHz에 맞춰 다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들었다.

김진솔 성도(요셉공동체)는 “비록 자동차 안에서였지만 오랜만에 성도님들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예배였다”고 말했다. 이날 주차봉사를 한 강영희 집사(영등포구로공동체)는 “질서정연하게 가득 들어선 자동차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드라이브인 워십 예배시간은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4부 오후 4시다. 드라이브인 워십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드라이브인 워십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사전신청해야 한다. 매주 월요일 9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각 예배마다 차량 250대 선착순 마감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기쁨의 50일(부활절-성령감림절)을 공감소비운동으로

5월 31일까지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 돕는다

온누리교회가 부활절 및 4월 비전헌금으로 ‘공감소비운동’을 실시한다. 공감소비운동 캠페인은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5월 31일(주일)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전통시장과 취약 계층을 돕는 사회적 나눔 운동이다.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물건을 구입해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뜻 깊은 운동이다. 공감소비운동에는 부활절 헌금 및 4월 비전헌금이 사용된다.

공감소비운동에는 이렇게 동참하면 된다. 교회가 부활절 및 4월 비전헌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각 공동체 다락방에 나눠주면, 각 다락방에서는 5월 31일(주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의 직접 지원은 지양한다. 반드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해야 한다.

사회선교본부에서는 공감소비운동에 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돕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4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

4월 30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간

온누리교회가 4월 30일(목)까지 국내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간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는 공동체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교회 본당에 나와 1시간 동안 중보기도하는 기도운동이다. 각 캠퍼스 안내데스크에 마련된 기도문을 이용해서 중보기도 하면 된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는 공동체별로 등록된 성도만 참가할 수 있다. 참가인원은 서빙고와 양재 10명, 캠퍼스는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도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온라인 릴레이 기도’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이름을 적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문의: 02-3215-3201, 02-3215-3313

한동대, 한국 교회와 함께 ‘필사즉생’ 캠페인

말씀 필사해서 보내면 취약계층 및 재학생 후원

한동대학교가 한국 교회와 함께 ‘필사즉생(筆寫則生)’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작된 필사즉생 캠페인은 오는 4월 30일(목)까지 이어진다.

필사즉생 캠페인에 참가하려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종이에 쓰고(날짜, 교회명, 이름, 쓴 구절 수 기재), 쓴 구절을 사진으로 찍어서 네이버 폼 bit.ly/upwords에 올리면 된다. 본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hguforhgu’ 태그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hgustugov’ 태그해도 된다. 사진이 3장 이상이면 이메일(sarang@handong.edu)로 보내도 된다.

말씀 한 구절 당 200원이 기부된다. 경북 포항지역 취약계층 운영기관에 100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동대학교 재학생에게 100원씩 기부된다. 필사즉생 캠페인에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개인 및 교회,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재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한동만나’ 기부자도 모집한다. 기부자 1인이 1만 원을 한동만나에 기부하면 네 끼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한동만나 후원계좌(하나은행 518-910007-34704)로 기부금을 입금하면서 ‘본인 이름과 한동만나’를 동시에 입력하면 된다.

문의: 054-260-1063

/ 정현주 기자

OCC공동체, 4월 순헌금 선교지 지원

선교지 코로나19 극복하는데 사용

OCC공동체가 4월 순헌금을 선교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기부하고 있다. OCC공동체는 4월 순예배에서 봉헌한 헌금을 모아 공동체에 연결된 책임선교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4월 첫 번째 순헌금은 아프리카 M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에반 에셀 선교사와 남아시아 A국 등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달했다.

에반에셀 선교사는 “OCC공동체가 후원해준 4월 순헌금으로 현지에서 마스크 등 의료물품을 현지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감사인사를 건넸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 라 인 예 배 안 내

1.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예배(1~7부)와 새벽예배(1부 오전 5:20, 2부 6:30)에 참여합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CGNTV: www.cgntv.net
2. 개인영성 관리를 위해 생명의 삶(QT)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예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에 매일 참여합니다.
3.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4.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9:00, 11:30, 오후 2:00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오후 2:00
-파워웨이브 오전 9:00, 11:30
-차세대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
5. 대학청년 온라인 예배
-주일예배: 토요일 오후 5:00, 주일 오전 11:30 주일 오후 2:00, 4:00, 5:30
-홀리스타: 오전 6:30(월~금)
-대학청년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 교회대학청년
6. 외국어 온라인 주일예배
-영어예배 오전 11:00, 오후 4:00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스페인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오후 2:00
7. 장애인 온라인 예배
http://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장애인사역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누가복음 24:25~3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살아 호흡하는 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라는 단어를 붙여야 할 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의 이면에는 불신을 넘어서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 편견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자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자연이 존재한다. 지금의 자연 위에 새로운 자연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새로운 자연의 문을 연 최초의 사건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연의 문이 열려진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자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연을 새롭게 하셔서 새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어떤 재난이 주는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야 할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입니다. 과거 역사나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금, 두려움과 실의에 빠져 있는 지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금, 어떤 이유든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바로 지금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야 합니다.

둘째, '나에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8)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 것입니다.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두 단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을 살지 않거나 나에게 역사하시는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역사의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의 위기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순결하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음모에 의해 불법 재판에 넘겨지고, 어리석은 군중들의 외침을 통해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소수의 증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모든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보았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깊다는 것입니다.

절망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지 증명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에 동행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눅 24:15~17).

16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자연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계시지만 새로운 자연과 연결하는 문이 되셨고, 길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자연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과학의 탐구도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들의 눈이 왜 가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후에 이것에 대해 "마음에 더디 믿는 불신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실제를 보는 눈은 오직 믿음으로만 열립니다.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 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눅 24:19~24).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해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25절).

부활을 더디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요, 부활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까이 있으십니다.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때에도 동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27절).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 도착해서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30~31절).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그들이 한 대화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32절).

길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눈이 열린 것입니다. 슬픔이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슬픔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참된 진리를 깨닫는 지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다시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는 까닭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 눈을 열게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눈이 열리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처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눈이 가려져 영적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하여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이들이 "주님은 참으로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참으로'라는 단어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은 참으로 살아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부활의 증인과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믿기를 거부하고 마음에 더디 믿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 호흡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부활 생명으로 호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디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살아 호흡하는 한 그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나공동체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예수공동체'

지난 4월 5일 저녁 예상치 못한 선물 꾸러미가 집 앞에 도착했다. 식품들이 가득 담긴 상자와 쌀 한포대가 담겨 있었다. 도대체 이 귀한 선물을 누가 보냈을까? 배송인을 확인했더니 '하나공동체'였다. 그날 하나공동체 탈북민 전체가 식품과 쌀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선물의 이름은 '서바이벌 키트'였다. 탈북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여러모로 신경 쓰고 계심이 가슴 깊이 큰 감동으로 전해졌다. 탈북민들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아이디어를 내신 김영창 목사님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공동체 리더십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앞에 온 세상이 멈추었다. 국가도, 개인도 모두 끝을 알 수 없는 재난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토록 굳건해 보였던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다른 나약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절대적 믿음처럼 여겼던 기계문명이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아비규환을 초래했다.

'계몽과 근대', '현대와 발전',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그동안 최고의 가치와 선으로 여겼던 언어들이 '인종과 배격', '오리엔탈리즘'과 '연대의 가능성'이라는 차별적 언술과 의문들로 요즘 세상을 배회하고 있다. 역병을 이기려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을 위해 하나공동체가 준비한 '서바이벌 키트'.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 두 가지 모두 자기를 특화하면서 서로를 훼손시킨다는 대립이 길항을 이루고 있다. 뾰족한 대안 없이 무너져 가는 사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공동체가 답을 제시하고 있다. 문 앞에 놓인 식품꾸러미와 쌀 포대를 보며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에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였고, 위기 속에서도 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예수공동체'다.

인류역사 속 많은 공동체들이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다. 만민공동체, 귀족공동체, 노동공동체, 사회주의공동체 등 공동체의 이름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공동체의 자정능력을 의심받으면서 사라지거나 갈등 속에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오직 하나의 공동체는 예수공동체뿐이다. 예수님은 '서로를 돌아보아 섬기는 것', '그 속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의 본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이겨나갈 길을 제시하신다.

실패한 수령공동체 국가 북한이 변화되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날마다 기도한다. 조만간 다시 모일 하나공동체 예배가 기다려진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다.

/ 최영일 집사(하나공동체)

관악금천공동체 온라인 순예배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며…

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3월 순모임 개강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의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예배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순 식구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순예배 개강을 누구보다 고대하고 있던 터라 아쉬움이 컸다. 그런데 교회에서 온라인 순예배에 대한 공지가 왔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왠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져서 '순모임을 화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다. 그래도 화면으로라도 순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의 마음도 생겼다.

드디어 순예배 첫날 저녁. 우리 가정이 접속했을 때 화면 속에는 벌써 세 가정이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다. 나중에 한 가정이 더 들어와 총 다섯 가정이 화상 순예배를 드렸다. 처음이다 보니 작동법이 미숙해서 대화가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화면이 꺼지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큰 목소리와 여러 돌발 상황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져 아쉬운 점이 참 많았다. 그러나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서로의 얼굴과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는 반가움과 알 수 없는 울컥함이 가슴속 가득 퍼졌다.

2주차 순예배 저녁. 이번에는 서로가 10분 전에 미리 접속해 테스트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 확실히 처음보다는 진행이 원활했다. 한 사람이 나눔을 할 때 다른 가정은 모두 음소거 버튼을 눌러서 경청하고, 잘 안 들릴 때는 기계에 가까이 다가가 크게 말하고, 어린 자녀들의 돌



관악금천공동체 은혜4순 지체들이 온라인 순예배를 드리고 있다.

발행동으로 예배가 끊기면 기다렸다 함께 해주는 등 서로를 배려하는 순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순 식구들 중에 몇몇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이도 더러 있었다. 그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지만, 아이 때문에 업무집중이 안 돼 힘들다고 토로했다. 엄마들도 애로사항이 있었다. 집에만 있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치고 자주 화를 내게 된다며 인내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함을 토로했다. 한 순원은 직장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었단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예배 말씀과 순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나눠주었다.

우리는 이 위기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뜨겁게 통성기도를 했다. 비록 영상이었지만 그 어떤 오프라인 기도모임보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3주차 순모임 저녁. 이 날은 지난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하루 30분 공동체성경읽기', 가정예배, 사순절 성경필사 등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 예배드리는 방도 따로 마련하고, 아이들도 처음보다 훨씬 차분하게 순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온라인 순예배가 점점 안정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4주차 순모임 저녁. 코로나로 힘든 점도 있지만 감사한 것이 많다는 나눔과 고백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일상에서 순예배에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지체들을 보며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과 인내로 대하고, 직장문제 앞에서는 담대하게 각자 있는 곳에서는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온라인 순예배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처음 내 생각을 회개했다. 장소와 상황보다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난 4주 동안 절실하게 체험했다.

우리 순은 모든 순예배를 마치고나서도 서로 아쉬워하며 화면 너머로 계속 손을 흔들며 선뜻 나가지 못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났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화상 순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아쉬움이 도리어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소중함을 크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한 삶을 온라인 순예배를 통해 순원들과 나누며 고난을 능히 감내하는 믿음이 더욱 커진 게 가장 큰 은혜이다.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에는 파송되었던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삶의 간증을 나눈 것처럼 우리 삶에서의 믿음의 열매들과 간증들을 나누게 될 것이라 믿는다.

/ 국중대 순장(관악금천공동체)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양재 유년 1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 유년 1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8주가 되었다. 처음에는 2~3주로 예상했던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고 있고, 아이들의 개학도 미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되고 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참 낯선 일이었다. 주일에 성인예배를 드리고, 시간에 맞춰 초6, 초3 두 아들과 온라인으로 꿈땅 예배를 드린다. 실제 한 공간에 있지는 못하지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찬양 인도에 맞춰 두 아이와 함께 열심히 율동하며 목청껏 찬양을 부르고 있다. 아이들은 담당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날이면 "우리 목사님이다"하고 반가워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유년 1부 친구들도 부모님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리운 마음을 달래고 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 두 아들과 함께 교회에서 나눠준 사순절 필사 노트에 성경을 적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들어서인지 아이들은 아픈 이들이 얼른 치유되기를,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난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차세대 친구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엄미현 교사는 유년 1부 겸손 4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고 있다.

올해 1월 처음 만나 7주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던 유년 1부 겸손 4반 친구들을 떠올려 본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입술에 담아 본다.

"시은아, 은태야, 하율아, 여은아, 수현아, 세나야, 다솜아, 하늘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해본다. 또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안전해지기를 기도한다.

유년 1부 김종호 목사님과 하현덕 코치님, 그리고 유년 1부 모든 선생님들이 너무 보고 싶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떠나보니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유년 1부 1, 2학년 친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애쓰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다. 그냥 지나쳤던 이전의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님 사랑합니다.

/ 엄미현 교사(양재 유년 1부 겸손 4반)

여호수아공동체

'프리즘 택배 프팡맨'과 함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여호수아공동체 프리즘 택배, 프팡맨입니다!"

'프리즘 택배, 프팡맨!' 프로젝트는 여호수아공동체의 프리즘 그룹에서 리더십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목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리더십들이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실질적인 어려운 상황들과 여러 소식들을 접하게 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격려하고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더십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으면서 직접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김한국 전도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다. 그것이 바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집까지 배달하는 '프리즘 택배, 프팡맨!' 이다. 작게나마 준비한 간식꾸러미와 함께 위로와 격려를 담은 편지도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포장했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하시며,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건강하게 곧 만나자"는 내용을 담았다.

프리즘 그룹 임원단이 택배를 배달하는 '일일 프팡맨'이 되어 차량으로 배달을 진행하였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 안 되기에 포장한 선물을 문 앞에 둔 다음 인증사진을 찍고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었다.



여호수아공동체 프리즘 그룹 임원단이 공동체 리더십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선물을 배달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다. 작은 이벤트지만 조금이라도 리더십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곳곳에 퍼져 있는 리더십들의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들이 참 감사했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모두에게 전해지는 시간이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받은 지체들은 빨리 기쁨을 나누고 싶어도 아직 받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다. 모든 리더십들이 택배를 수령한 그날 저녁과 다음날이 됐을 때 프리즘 리더십 단체채팅방은 감동과 사랑의 말들이 가득했다. 택배를 받던 날 마음이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위로가 되었다는 말부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있어 감사하다는 고백, 사랑하는 프리즘 식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인사까지 다들 너무 기뻐해주었다. 기뻐하는 리더십들의 모습을 보니 임원단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다.

지금도 많은 순장님들과 리더십들이 각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온 마음을 쓰며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공동체를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리더십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한다. 더불어 모든 순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의 교제가 세워지고, 각 처소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나에게도 그렇듯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믿고 소망한다. 어렵게 홀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청년 지체들이 결코 낙망하지 않기를 소원한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사랑의 공동체에 힘입어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두고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기를 소망한다.

/ 김예슬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LA 온누리교회

교회 돌봄과 이웃 돌봄

안녕하십니까? LA 온누리교회 이정엽 목사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서부 상황을 궁금해 하실까봐 한국 성도님들께 잠시 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20일 기준으로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9,415명, 사망자 150명이었는데, 4월 14일 오전 기준으로 확진자 586,941명, 사망자 23,6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의 최전방이 되어버렸습니다. LA 온누리교회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지난 3월 19일 밤 11시 55분 이동금지행정명령이 내려져 몇몇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장인들이 자택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의 미디어에 소개된 것처럼 잠시 사재기 열풍이 불기도 했지만, 화장지나 마스크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언제든 구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Covid-19 Protocol'이라고 해서 준비태세를 마련하고 대응해왔습니다. 지난 3월 첫 주일에는 감기 환자나 한국 여행자를 만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가 체류를 권하다가, 단계 4인 '심각' 수준에 도달했던 3월 셋째 주일부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예배를 포함해서 주중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역자들은 이전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순예배, 청년, 차세대에서도 영상을 통한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동제한 훈령이 내려져 있지만, 목회자들의 영상예배 촬영과 곤궁한 성도를 돌보는 일은 '필수 활동'으로 인정되어 이동의 제한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모이기 어려워진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 중에 실직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할 섬김의 요청은 더 많습니다.



2주마다 교인 40여 가정을 방문해 섬기는 'CO프로젝트' 박스. 비상생활 필수품과 식재료 등이 들어있다.

먼저는 교회 내부의 돌봄입니다. 40여 가정을 섬기는 'CO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2주마다 가정으로 물품을 전달해드리는 섬김입니다. 1차로는 비상생활필수품 패키지를, 2차로는 쌀, 마스크, 세정제, 교회 애찬팀에서 직접 조리한 두 끼 정도의 곰탕과 김치, 밑반찬 등을 전해드렸습니다. 물품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전해드리러 가는 발걸음 가운데 눈물이 핑 도는 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LA의 유명 한식당에서 불고기 도시락을 매주 30인분씩 제공해 섬기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을 담은 물품을 나누는 일들이 교회 밖 지역사회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 내부 돌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겨야 할 필요도 많습니다. 우선은 당회가 긴급하게 4월 비전헌금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진 LA 지역교회를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상 제작 및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지만 코리아타운에 있는 소규모 교회들은 그럴 인력과 장비가 없습니다. 게다가 상업용 건물에 세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도 여전히 월세를 내야하는 재정적 부담도 큽니다. 이곳은 한국처럼 계좌이체가 쉽지 않지만, 이웃 교회들을 섬기려고 활발하게 비전헌금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열악한 한인 이민자들의 건강 향상을 돕는 '유두고 사역(YuDoGo Ministry)'이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유대인 계열 Cedars-Sinai 종합병원의 건강형평성센터와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한인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가정, 재정, 신분 등 총체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너네도 한국 오면 안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담임목사인데 어딜 갑니까? 게다가 비행기 값이 3배까지 뛰어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라고 웃으며 설명 드렸습니다. 고국인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선도적으로 잘 해결하고, 미국도 이 팬데믹을 잘 극복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원 위치되고, 성도들이 겸손히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기대해봅니다.

/ 이정엽 목사(LA 온누리교회)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회개와 회복의 기회로!

요코하마 온누리교회에서 서울의 성도님들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일부터 주일예배를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한국어와 일본어(수화 통역 포함) 설교를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벤트 영상 공개용으로만 쓰고 있었던 교회 유튜브 채널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 많은 이들과 활발하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예배에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되, 평소와 의자 배치를 달리해서 드렸습니다.

3월 1일부터 3주 동안 교회에서의 모든 집회와 예배를 취소하고, 예배당 출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기도나 교회 운영상 꼭 필요한 때에는 개방 시간(화~토 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철저하게 방문자 기록을 남겨 교회 출입 인원을 파악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큐티그룹 리더들이 전화나 SNS메신저 등으로 성도님들의 근황과 기도제목을 기록해 교역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그룹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은 교역자들이 전화로 심방합니다.



요코하마 온누리교회가 수요예배를 야외에서 넓게 퍼져서 드리고 있다.

특별히 수요예배를 야외에서 넓게 퍼져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음성수신기 사용). 요코하마 땅을 바라보며 각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매일의 새벽기도회는 모이지 못하는 대신 교회 홈페이지에 묵상가이드(설교)를 업로드하여 성도님들의 큐티를 돕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애통함마저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감사와 기쁨 없이 당연하게 모였던 예전의 우리 모습에 대해 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마다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 어려운 때이지만 이 기회가 회개와 회복, 은혜의 기회가 되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온누리교회의 기도제목을 공유합니다. 기회 될 때마다 중보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와 교회, 지역이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도리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초신자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세례 및 제자 양육이 잘 진행되도록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코로나19와 장애인

재난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다. 매일 안전안내 문자를 보고,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을 뉴스 대신 듣고, 외출하기 전 자신의 동선이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지 확인하고 집을 나선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성도들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대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남을 돌아보는 여유를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지나다보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남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처럼 적응하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보고, 듣고, 줄을 서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바로 장애인들이다.



"재난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을 돌아보고, 그동안 미진했던 것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재난이라는 위기는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는 새로운 기회로 변하게 될 것이다."

재난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장애인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5%에 해당하는 260만 명이 장애인이다. 단순 수치로만 본다면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4인 가족을 한 가정의 평균으로 본다면 천만 명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내 이웃의 다섯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몇몇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회적 인프라가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따로 구분해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연습되지 않았다. 그러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다.

서울에 진도 5.0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바로 내 옆에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재난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휠체어를 밀어서 이동시켜야 할까? 아니면 휠체어는 둔 채 장애인을 업어서 옮겨야 할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휠체어에 태운 채 번쩍 들어 탈출해야 할까? 물론 재난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과 함께 대피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런 일들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인들은 위험한 재난 속에서 비장애인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기 쉽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로부터의 고립이다. 방송에서 수화통역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설사 수화통역이 배치되어 있어도 획득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판단근거와 정보가 부족해서 사실보다 무서운 상상에 빠지기 쉽다.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활동보조사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가격리라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로 서울의 한 중증장애인은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지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도 불가능하고, 다른 활동지원사의 지원도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14일을 보내야만 했다.

더 큰 문제는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유사한 사례들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장애인들이 대피하지 못했고, 집에 갇힌 채 누군가의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 재난의 위험 속에 그 누구도 남겨둬서는 안 되는데 다들 정신없는 와중이다 보니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이 남겨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는 비극적이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 재난 당시 특히 사망률이 높았던 집단이 장애인들이었다고 한다. 당시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2.5배나 높았다고 한다. 굳이 이러한 비상상황을 상정하지 않아도 재난상황에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비장애인에 비해 2~3배에 달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을 돕는 방법 생각의 전환, 위기관리 매뉴얼 준비 등

재난상황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접근하는 것부터가 서먹한 사회이지만, 생각을 전환하면 재난을 장애인도 함께 당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게 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 어떻게 지체장애인을 데리고 건물을 무사히 나올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위한 대피소는 어디이고, 그곳에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지금까지 배려하지 않았던 것들을 배려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장애인과 함께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재난관리 선진국이라고 평가되는 미국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부처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처의 주된 일이 대응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이다.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자세하게 매뉴얼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진이 발생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옆에 있다면 조력자의 팔을 잡고 같이 이동하도록 한다. 이때 말로 계속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시각장애인이 공포에 질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옆에 청각장애인이 있다면 조력자와 함께 손전등을 켜고 이동한다. 가능하면 수화나 그림 등으로 시각 정보를 같이 주면 도움이 된다. 옆에 지적장애인이 있다면 먼저 불안하지 않게 상황을 쉬운 말로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할 때는 반드시 손을 잡고 함께 이동해야 한다. 만약 주변에 지체장애인이 있다면 조력자가 업거나 안아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물론 상황별로 행동요령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원칙들을 매뉴얼화 해놓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기초로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응용할 수 있다. 물론 매뉴얼 하나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인 도시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동선을 고려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더 넓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여러 대안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재난 이후에서야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역 내 장애인 거주자의 정보를 동, 구 단위로 파악하기 시작했고, 장애인들이 재난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개개인별 대피계획까지 설계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난이 발생하면 주변 이웃들이 장애인들을 돕게 하는 '친한 이웃 제도' 같은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비로소 장애인을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다. 재난 중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아보고, 그동안 미진했던 것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재난이라는 위기는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는 새로운 기회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물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일이고, 한꺼번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셨던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먼 나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이 행복해하는 사회가 우리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시리즈
재난과 목회상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랑을 외치다!

비밀은 가르쳐주면 압니다. 비밀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비는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들어도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이 경험하기 전까지 신비는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비의 속성을 삶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경험해야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 경험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어이없고 불안한데다 슬프고 절망스러운 경험이라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잔인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경험해야 삶이라는 신비도 알고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깨닫겠지만 지금 당장 그 뼈아픈 경험을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무척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위협이 불안을 넘어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비열함과 잔인함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기본적인 위생용품인 마스크나 손세정제의 매점매석 행위와 사재기,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국가와 특정 지역, 외국인과 확진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xenophobia)가 도를 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당장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의든 타의든 집에 머물게 되면서 가족 간 언어폭력과 가정폭력, 이혼율이 증가하는 마음 아픈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혼의 안식처(querencia)로써 교회가 신천지라는 이단에 의해 매도되어, 어느덧 바이러스 온상지라는 불안한 공간처럼 인식된 것에 대해 피눈물이 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배중단을 종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공동체에 대해 비난하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집단 공용시설들과 달리, 생명과 공익을 걱정한 교회가 교회공동체의 건강한 협의 과정을 거쳐 선제적으로 디아스포라예배(온라인 가정예배)를 제안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교회를 폐쇄하기도 했지만,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예배의 횟수를 늘리고, 예배당 소독과 개인 위생용품 구비 등 많은 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일부 무분별한 언론에 의해 호도되어 이단과 교회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속상한 현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한 사람의 목회상담학자로서, 또 실천신학자로서 드리는 부족한 제안이 글을 읽는 모든 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적 반응

먼저 현재의 상황은 온 세계가 인정하듯 재난상황입니다. 예상할 수 없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게다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재난은 사람에게 생존의 욕구를 촉발, 아니 폭발시킵니다. 사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생존이라는 개념은 에너지를 가장 크게 증폭시키는 콤플렉스(complex)입니다. 무사안일의 삶이라면 이 콤플렉스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난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오면 이 콤플렉스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가 가진 지식, 도덕과 윤리, 때로는 성품과 신앙까지 무너뜨립니다. 오로지 생존을 위해 앞만 보고 뛰어가게 됩니다. 누가 내 옆에서 아픈지 누가 힘든지는, ‘그 따위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 고 여기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발달 과제를 갖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과 발달의 과정을 거치며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함이나 혹은 심지어 공포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발달을 통해 이루어야 할 과제가 큰 짐으로, 혹은 스트레스로 환원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울안에 있던 안전함을 누리던 아이들이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 청소년 시기를 경험합니다. 이 시기의 발달과제는 아무래도 자아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경험하는 이 과도기적 혼란을 잘 넘기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혼란을 재난과 같이 여겨 많은 아이들은 질풍노도의 불안정을 경험합니다. 혼란과 절망, 우울과 깊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난생처음 경험하는 재난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기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지지그룹이 있다면, 이 아픔에서 좀 더 빨리 회복되고 또 다른 성장과 발달 과정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의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기에 ‘당장 내 코가 석자’ 라는 생각이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극복하거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되고 상처는 더욱 깊어지는 경향을 갖습니다. 따라서 재난이 가져다주는 불안정성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 외상(communal trauma)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신체화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온통 혼란한 마음, 우울함, 불면증, 편두통, 멍한 느낌, 근육경련, 가슴통증과 답답함, 빈맥과 호흡불안정, 가성(가면)질환 등의 증상을 경험합니다. 집단적으로는 예민함, 이기심, 분파주의, 차별, 집단적 분노와 증오범죄, 의심과 폭력, 집단 조울증 등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인이라 해도 사람인 이상 이러한 외상의 범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조금 더 큰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 속에 감춰진 인간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 신앙과 삶의 일치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영적인 혼란함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또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기도와 말씀,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현실을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등 재난의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람은 불안한 현실을 오래 버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회복하고자 불안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찾습니다. 또 찾은 이유에 대해 비난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단, 특정 나라나 지역, 특정 인물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어느 누구나 사랑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비난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스스로에 대해 슬픔과 혼란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앙인이 갖는 재난에 대한 마음은 더욱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목회상담적 해석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현재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재난의 이유를 찾고 분석하려는 시도보다는 재난의 이유를 묻는 상한 마음을 위로해야 합니다. 분명한 답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에서 “왜?”라는 질문은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사람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피폐하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병리적 양극단을 오가게 합니다.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신기루와 같은 가성(假性) 희망에 빠져 신비주의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불안과 공포의 이유를 찾는 아픈 마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욥 19:21~22). “힘들었지?”, “미안해”, “고맙다”, “사랑한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남겨질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심판과 경고”라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의하듯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의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마 1:23).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시 80:3). 신학은 이것을 ‘회개’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난 상황에 매몰된 듯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즉 ‘거리두기(optimal distance)’ 를 통한 정확한 상황인식을 하게 됩니다. 재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면 즉, 회개를 통한 거리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정체성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빌 3:20).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눅 18:9~14, 빌 2:5~8).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행 1:8).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빌 2:3),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사랑을 외치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별은 더욱 선명해 집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욕구라는 콤플렉스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천국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게 집중되는 조명 하나를 끄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따뜻하게 품는 사랑 그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

신 이유인 사람을 애틋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눈물나는 재난이라 할지라도, 가슴 먹먹해지는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말입니다(요일 4:7~12).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을 외칠 수 있을까요? 비행기 사고라는 재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산소마스크를 아이에게 먼저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자기관리와 정서관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인 자신이 먼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스스로의 영성관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 성경 암송과 필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 104회 총회 주제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분깃으로 삼는 것입니다(시 119:57).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로 지내는 일이 많아진 요즈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모이는(ecclesia) 예배자로 지내건 흩어지는(diaspora) 예배자로 지내건 간에 건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관리를 위해 교회는 여러 가지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영상예배, 화상 성경공부, 혹은 SNS와 인쇄물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영적관리의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연세 드신 분들과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 녹음과 녹화, 유인물 제작 등 재난 상황이지만 영성훈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자로 설 때에도 공중위생과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들(예배 횟수를 늘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여러 가지 위생 물품을 구비하는 것 등)을 찾아 혹시 모를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스크 너머로 미소 짓고 인사하는 법을 개발하고, 비접촉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한 인간애가 느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관리의 실천입니다. 재난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이 경험하는 우울증(corona blue)의 양상은 두 갈래로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깊은 허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울이 깊어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쓰나미(tsunami)처럼 몰려오는 불안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왠지 모를 허둥댐과 긴장감에 휩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갈래는 분노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파괴적 성향을 나타냅니다. 예민하고 거칠고, 조그마한 자극에도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우울한 감정의 극단적 양상과 함께, 다양한 기분장애와 불안장애, 특히 공황장애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차분히 앉아 잠시 복식호흡을 한 뒤, 몸에 힘을 줬다 뺐다를 반복하는 에드문드 제이콥슨(E. Jacobson)의 '점진적 근육긴장 이완기법(progressive muscular tension-relaxation method)'을 권장합니다.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차분히 앉아 자신의 정서를 정리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크게 네 가지 군(群)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쁨, 슬픔, 분노와 불안입니다. 해당 감정을 느끼는 상황을 각각 스무 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라는 감정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 상황을 스무 가지 적어보면, 그 안에 어떤 패턴을 발견합니다. 혼자 있을 때 기쁘다든지, 혹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때 기쁘다든지 하는 패턴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심리 안에 형성된 기쁨의 양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감정들도 구체화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의미한 사람들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적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트 각 장의 맨 위에 자신의 주 양육자(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등)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 긍정적인 인물 한 사람과 부정적인 인물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가감 없이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정서-심리적 안정을 갖게 됩니다. 무의식의 의식화를 정신역동이론에서는 치료라고 합니다. 혼란한 현재이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글로 정리하면 치료받는 것과 같은 정서적 위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 및 정서관리를 통해 스스로의 회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공동체 회복의 매개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위해 먼저 그리스도인은 '나'라는 아집에 매몰되어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거친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집이라는 작은 공간에 모여 예배도 하고 생활도 하다보면 자연스레 가족 간 의견충돌이 생기고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active listening)'을 연습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에는 화를 내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I-언어(I-language)'를 사용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나-언어'는 상대에게 나를 강요하는 폭력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친절하게 제공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잘못이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며 상대의 이야기가 내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 구성원 하나 하나를 존중하며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라는 폐쇄적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모이는 예배건 흩어지는 예배건, 교회의 형편에 따라 결정한 예배의 형식에 대해 서로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만 옳다는 분리나 분파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포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단의 늪에 빠진 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주님이 가까우심을 알아 우리가 가진 관용과 배려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빌 4:5). 즉, 선교적 여유와 배려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굳이 필요가 없다면 마스크를 사는 줄에 서지 않습니다. 혹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손세정제를 나눕니다. 택배 하는 분들에게 간식이나 음료를 대접합니다. 마스크 안에서 굳은 얼굴로 있기 보다는 마스크 너머로 미소 짓고 인사를 나눕니다. 위생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내가 가진 마스크를 나누거나 필요한 도시락과 생필품을 배달합니다. 음료를 격려의 글과 함께 건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시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가난한 지갑을 열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섬김을 실천하길 제안합니다. 현재 규모가 작은 많은 교회는 재정적인 큰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형편이 그나마 괜찮은 교회가 힘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교회들이 서로 예배 및 주일학교 성경공부 자료를 공유하는 상호 섬김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인내하며 외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힘들어 하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보낼 수 있다면 성금과 물품을 보내고, 우리가 가진 코로나19 상황에서 터득한 예배의 노하우나 원격(화상 및 그룹채팅 등) 성경공부의 기술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다양한 동영상과 녹음된 자료들, 인쇄된 출판물들을 해외의 선교지와 목회지에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과 위기의 상황이기에 공공의 건강과 생명,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는 교회(디아스포라)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길어지면 사람은 그에 적응합니다. 심지어 그 상황을 즐기기까지 합니다(예: 스톡홀름 증후군).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 기쁨도 잠시, 모이는 것에 대한 어색함과 피로감으로 지칠 것입니다. 이때 모이는 교회(에클레시아)로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분명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전심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행 2:1~4).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래도 믿음의 공동체인 모이는 교회(ecclesia)에 더욱 강렬함을 알아야 합니다(행 2:46~47, 4:32~33). 또한 히브리서는 성도의 모임에 대하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모습이라고, 더 나아가 서로 돌아보기 위해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필수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히 10:23~25). 물론 흩어지는 교회(diaspora)의 성경적-신학적 의미 역시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박해와 위기, 재난 상황이 아닐 때, 인간의 죄성은 흩어져 홀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게으름과 변명, 나태와 자기합리화의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앞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포용을 언급했지만,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천지 이단은 와해될 개연성이 큽니다. 이때 이단에서 돌아온 이들을 품는 관용과 함께,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바른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았었는지, 성과를 중시하는 번영신학에 취했었던 것은 아닌지, 복음에 대한 바른 교육이 있었는지, 보다 건강하고 깊은 성경공부에 대한 제공은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체계를 굳건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실천신학자로서 부족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 글이 목회현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텅 빈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파하는 목사님들께,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님들께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시 학생들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학사 일정을 연기하고,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예배도 디아스포라예배(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경건교육처장이라는 보직을 맡아 예배 순서자만 참여하는 디아스포라(영상)예배를 지금까지 여덟 차례 드렸습니다. 텅 빈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쯤 모든 학생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가슴 아프게 기도했습니다. 설교하시는 교수님이나 순서를 맡은 분들이 눈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인생이기에 이러한 위기 상황이 도래한 이유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자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며 한 숨 쉬고 눈물 흘리는 우매한 한 사람의 예배자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고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시 86:17, 103:3, 147:3, 렘 31:13, 슥 1:17, 마 9:35, 막 1:34, 눅 7:21, 롬 15:5, 고후 1:1~7).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을 인내하며 외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 이상억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문화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성찰(I)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신마르크스주의의 다른 얼굴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임대표,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설립원장)



'문화 마르크스주의' (cultural marxism)는 신마르크스주의(네오마르크시즘, neomarxism)의 다른 얼굴(문화적 얼굴)로써 21세기 초반인 오늘날 인권, 관용, 포용, 인도주의, 인종차별금지, 환경 보호, 노동자 권익보호,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선한 얼굴로 다가와서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추구는 이러한 선한 가치들의 보존이 아니라 배후에서는 전통적 사회와 기독교 가치를 무너뜨린다. 그것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러한 선한 가치들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궁극적으로는 특권을 누리는 소수자가 지배하는 유사(類似)전체주의(quasi-totalitarianism), 무차별적 평등의 세속주의, 성 해방의 에로스 사회, 하나님 없는 인본적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한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1920년대 유럽에서 발생하여 1960대 유럽과 미국에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 이래 군대나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사상의 전쟁(s war of ideas)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서구 문명을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 이룩한 계몽주의적 가치관과 마르크스적 가치관 사이의 전쟁이다. 1990년대 이후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또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종식되었으나 문화 마르크스주의로 문화적인 모습을 바꾸어 전통 계몽사회를 추락시키기를 위협하면서 서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질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2020년대 오늘날 서구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노동, 대중, 연예는 문화 마르크스주의 영향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이념으로 얼룩져 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와 젠더주의의 결합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1990년대 이래 젠더주의와 결합하여 영향을 주고 있다. 2000년대에는 모든 국가기관, 교육기관, 문화기관, 연예계, 예술계, 언론계, 지방자치 단체, 시민단체, 심지어 신학교와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 보수 신학의 터전이라는 총신대, 장신대 등에도 운동권 학생들이 침투하여 장신대에서는 2017년 5월 동성애 무지개 시위사건이 일어났고, 총신대에서 2019년 12월 반동성애 운동가요, 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담당 이상원 교수 강의록 편파 채취 성희롱 고발사건이 발생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 게오르그 루카치(Georg Lukacs, 1885~1971), 1923년 막스 호르커하이머(Max Horkerheimer)에 의해 설립된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창시자 그람시는 그의 『옥중 수고』에서 문화 헤게모니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것의 사상적 기원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kritische Theorie)이다. 1930년대 막스 호르크하이머, 데오도어 아도르노, 에리히 프롬 등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될 수 없는 사회로 보고 이를 전복시키는 비판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들의 비판이론은 프로이드 이론을 성혁명으로 급진화한 빌헤름 라이히의 성정치학(sex politics)과 결합하여 1960년대 학생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의 '6.8문화혁명'은 도덕 윤리파괴운동, 가치체계를 바꾸려는 운동으로 서구사회를 지탱해온 전통 기독교적 가치를 사회주의적 가치로 바꾸려고 획책하였다. 여기에 중요인물은 1960년대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자들 미셸 푸코, 질 들뢰즈, 자크 데리다, 조르지오 아감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 등이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 구조주의로 발전시켰다.

1960년대 프랑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문화를 중요시한 포스트마르크시즘(postmarxism)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해체주의 철학을 표방했던 프랑스의 자크 데리다는 자신의 책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해체주의 철학은 마르크스주의의 급진화"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주의가 서구의 계몽주의가 낳은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다면, 해체주의는 이러한 서구사회의 일체의 전통과 권위를 총체적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와 해체주의는 서로 사상적 상관성을 갖는다.

데리다는 1989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에도 마르크스주의를 변호하였다. 포스트모던철학자 미셸 푸코도 프랑스 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했고, 이후에는 중국의 마오쩌둥을 숭상하는 마오이즘에 심취하였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내지 비공식적으로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지지자들이 다문화주의, 정치적 올바름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체(Marxism-Leninism of the old Soviet Union)를 숨길 수 있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9년 월드뷰 1월호 「인터뷰」에서 심동섭 변호사가 한국 교회가 신마르크스주의(네오마르크시즘, neomarxism)에 포위되었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한국 사회에 대학교, 초, 중,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 사회정의라는 미명으로 신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와 동성애와 세습왕조체제인 종북사상을 퍼뜨리고 전통적 윤리와 가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2019년 5월 29일 샬롬나비 워크샵에 초청되어 기독교학술원 회의실에서 행한 강연에서 전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승규 장로께서 '문화 마르크스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오늘날 퀴어 동성애 문화를 사상과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한 것은 오늘날 퀴어 문화를 보다 깊은 시대사적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좌경 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공헌하고 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개념 정의

문화 마르크스주의란 문화를 통하여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적 흐름을 말한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세 가지 요소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서구 자본주의 문화 비판이다.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기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사회이론과 비판이론으로 소급된다. 독일 사회철학자 아도르노(Theodor Adorno)와 호르커하이머(Max Horkheimer)는 헤겔의 관념 철학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한 마르크스의 소외이론(theory of alienation)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접목하여 20세기 사회 이슈를 설명하는데 적용하였다. 마르크스의 노동소외이론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두 기둥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상가들은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열쇠는 마르크스의 노동자소외이론과 프로이드의 성 욕망 억제이론을 접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동자들은 단지 경제적으로만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금욕적 제도 안에서 성적 억압에 의하여 압제 당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 경제적 문제로서의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가정, 성, 성 정체성, 짧게 말하면, 전통적 서구 가치의 전 목록(the whole suite of traditional western values)이다. 이들은 기독교 금욕윤리가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억압하여 각종 질환과 사회적 소외문제가 야기하였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기독교 윤리와 가치 체계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나치가 1930년대 정권을 잡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부분 유대인 학자들이 연구소를 떠나도록 강요했을 때 이들은 미국으로 도피하여 세계의 가장 강력한 소비자본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문화와 가치체계를 약화시키는(undermine)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자본가들에 의하여 노동자들이 수탈당하는 자유기업 체제를 전복하고자 한다. 이들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서구 사회를 뒤엎는 심리학적 조작이라는 서서히 퍼지는 형식을 사용했다. 아도르노(Theodor Adorno)와 엘리히 프롬(Ehrich Fromm)과 마르쿠제(Herbert Marcuse)와 같은 이론가들이 1960년대 반문화(counterculture)운동(전통과 권위로부터 해방, 자유, 평등)과 이에 따른 유행(The vogue)이 대학으로부터 할리우드의 스튜디오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문화적 기관을 지적 포퓰리즘으로 점령함으로써 절정을 이룬다.

전통 기독교 가치의 전복(顚覆)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파괴하고, 전통적 제도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 내용들은 급진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게이 권리, 무신론 등이다. 이 영역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가 일반 대중들에게 지배력을 가지기를 시도한다. 이들이 창안해 내는 생각이 바로 '정치적 올바름'이란 용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반유대주의적(anti-semitic)이다. 서구 문명을 내부로부터 축소한 유대인의 관념에 마르크시즘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진 인종주의 비유(a racist trope)를 갖다 붙였다. 1980년대 후반 많은 미국인들은 가정,

중산층 삶이라는 전통적 가치의 퇴보에 실망했다. 오늘날 미국은 다문화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로 인하여 더욱더 정치적 올바름 명목으로 수행되는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공격에 더욱더 취약하게 되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정통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한 프랑크푸르트학파에서 혁명적 마르크시즘이 결핍됨에 대한 비판으로 특징되어진다. 이 용어는 학파 자체에 있어서는 비공식적 용어였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용어는 트렌드 슈로이어(Trent Schroyer)가 그의 박사학위 논문 '지배 비판: 비판이론의 기원과 발전' 에서 1973년경 처음 언급하였다. 신자유주의자(the neoliberal) 슈로이어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비판이론을 문화 마르크시즘이란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는 '문화 마르크시즘' 용어의 첫 사용자이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좁은 의미로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중문화 비판 계열(a strain of critique of popular culture)을 가리킨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문화를 자본주의 문화산업에 의하여 부과되고 대중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틀을 씌운다. 넓은 의미로는 진보적 경향을 갖는 사람들을 비밀 공산주의자로 그리는데 사용하는 공동적인 경멸 용어(snarl word)이다.

마르크스 성향의 좌파가 미디어, 아카데미, 과학에 침투해 들어가서 서구의 문화를 약화시키는 수십 년간의 모의(謀議)를 수행하는 음모론(a conspiracy theory)을 암시한다. 음모론 레벨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현대사회적 자유주의는 실은 공산주의 전위그룹(a Communist front group)이라는 암시가 있다. 좌파들은 문화 마르크스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극우집단의 마녀 사냥이나 혹은 음모론이라고 주장한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학문적 비판의 신비로운 전통(an arcane strain)에 서 있지 않다. 반대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자본주의 서구를 내부로부터 파멸시키려는 지속적인 마르크스적 모의(謀議)를 추동(推動)한다. 아카데미아를 통해서 그들의 사상을 퍼뜨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자유를 증오하도록 교조화시킨다. 그리하여 로켄롤(rock' n' roll), 1960년대 반문화, 시민권 운동, 반전 운동, 동성애, 현대 페미니즘, 1950년대 이래 서구의 모든 퇴폐(all the decay)운동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작품이라고 한다. 이는 역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 전통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마르크스, 프로이드, 라이히, 프롬, 아도르노, 버틀러가 다 유대인 가정 출신으로 유대-기독교 전통을 무너뜨리는 반기독교적 인물들이다.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저들의 이념을 관찰하기 위하여 '정치적 올바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마르크스적 대중적 추세에 합류하기를 유도(誘導)한다. 그 대표적인 아젠다가 성 해방과 동성애이다.

1960년대 프랑스 6.8혁명은 성의 자유를 내걸었다. 서구의 세속주의가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자유와 향락(享樂)을 위하여 전통 기독교가 부과한 금욕적 윤리로 성적 금기라는 것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여태까지 기독교적 금욕윤리가 서구인들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억압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전통 기독교적 성 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박관념이나 죄의식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전통 규범의 통제와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자는 것이 프랑스의 지식인의 센터인 솔로본느대에서 극좌 학생들이 일으킨 6.8 문화혁명이었다. 이 혁명은 독일 등 전 유럽 대학가를 휩쓸고 대서양을 건너가 미국 버클리대 등 미국 전 대학 캠퍼스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오염시키는 사상적 전염병이 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권위주의와 전통으로부터의 해방 뿐 아니라 성 억압과 동성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기들의 구호를 비판하는 자들은 '극우' (the ultraright), '성차별자' (sexist), '인종차별자' (racist), '동성애 혐오자' (homophobic) 등으로 평가절하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관용' (tolerance)이요, 성의 자유를 즐기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 이라는 '정치적 올바름' 이라고 선언한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화 헤게모니를 쟁취하여 전초전과 진지전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이루려고 한다. 이는 인본주의적 프로메테우스적, 반신적 이상향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용어 그 자체는 일반 학자들에 의해서는 순수하게 사용되기도 했으나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여 이 용어가 건전한 사회적 에토스(ethos)를 비판하는 문화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왜곡되고 있다.

마르크스적 이상향적 무차별적 평등사회 건설

일본계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1990년대 초반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꿰뚫어보고 "역사는 종언하였다"고 말하였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수록된 이 논문에서 그는 서방측의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고 인류사회의 궁극적인 체제로서 정착하는 최후의 이데올로기라고 단정하였다.

그는 이 논문을 확장하여 펴낸 그의 저서 『역사의 종언』에서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했다. 역사의 종언이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가 승리함으로써 사회제도의 발전이 종결되어 사회의 평화와 자유와 안정이 계속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사 발전의 종착점은 공산주의라고 마르크스는 예측했지만 나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1990년대 소련연방의 종언과 더불어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했으나 아직도 역사의 과정에서 여전히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형식으로 모습을 바꾼 마르크스주의가 우리 사회 각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다.

소련연방과 동구 유럽의 공산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치적 혁명이란 일격에 의하지 않고 문화기관을 통한 사회변혁이란 긴 행진(long march)을 통하여 자신들의 마르크스적 이상향 사회라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이를 위하여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을 계몽시키고 문화 혁명에 참가하도록 훈련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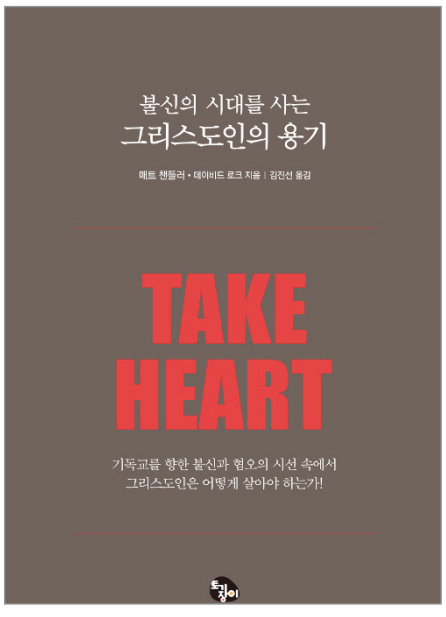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나 그 유산(遺産)인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이상향적 환상을 그 방법을 달리하여 노동자 혁명이 아니라 문화적인 혁명으로 이루고자 한다. 이는 노동자의 궐기에 의하여 폭력적(暴力的)인 일격에 의한 자본주의 정부의 전복이 아니라 오늘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예술, 노동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수행되는 문화 혁명이다.

이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화 헤게모니(정치적 올바름, 이데올로기와 성혁명, 무차별적 평등주의 등)를 쟁취하여 전초전(前哨戰)과 진지전(陣地戰)을 통하여 그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이루고자 한다. 이는 인본주의적 프로메테우스적 반신적(反神的) 이상향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정의와 사랑이 평화로써 입 맞추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對敵)하고 있다.

(계속)

책 읽어주는 목사

“용기를 내십시오!”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
매트 챈들러, 데이비드 로크 저 | 토기장이 | 10,000원

며칠 전 교회로 향하는 길이었다. 양 옆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길을 배경으로 사진 한 컷 남기는 커플, 인터넷쇼핑몰 옷 광고를 찍는 듯한 몇몇의 사람들, 그저 꽃길을 걷고 싶어 삼삼오오 거니는 사람들 등 갖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춘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절은 흘러가고, 생명은 소생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며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는 것일까? 왜 유독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복음에 관한 주제에는 냉담한 것일까? 세월이 가고, 벚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는 믿는데,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왜 거부하는 것일까? 우리는 바야흐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매트 챈들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정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적인 신념에 사로잡힌 ‘광신자’이며, 교회는 ‘혐오집단’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되었고, 교인들의 믿음은 증오로 가득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 시선에 대한 이유를 “세상의 문화는 18세기 계몽주의의 발흥을 시작으로 형성된 인간의 이성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교회의 믿음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회심’시키려 하거나, 문화를 ‘정죄’하거나, 문화를 ‘소비’하려고 하는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제 전혀 새로운 반응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네 번째 반응(혹은 입장)을 소개한다. 그것은 ‘용기’다.

그렇다면 용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막연하게 스스로 쥐어 짜내는 용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용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한 대낮에는 누구든 강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용감하게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불신의 시대 속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처럼 기독교 국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사라졌다. 나라의 정치, 문화의 체계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그 중심축이 옮겨진 것이 사실이다. 환한 대낮의 시절에는 그다지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어두운 밤과 같은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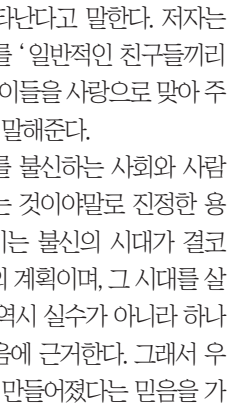
저자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넘치는 부요하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알아야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자만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만큼 거대한 용기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기를 힘입어 살아가라고 말한다. 그 용기는 거룩과 헌신, 그리고 복음 전도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용기는 ‘환대’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저자는 환대의 정확한 의미를 ‘일반적인 친구들끼리의 교제권 밖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맞아 주는 것’이라고 풀어서 말해준다.

불신의 시대, 우리를 불신하는 사회와 사람들을 향해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일 것이다. 그 용기는 불신의 시대가 결코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역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롬 5:8).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불신했던 나 같은 죄인을 환대해 주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



김용민 목사
(여호수아공동체)

아가는 진정한 용기를 배우게 된다. 용기를 내자! 그리고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자!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더없이 좋은 때를 사는 것처럼.

목회칼럼

내 질문과 주님의 질문

유럽과 미국, 나라 안팎의 상황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될 것 같다. 처음 겪는 초유의 사태에 우리 안에는 질문이 무성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과 사를 달리하고, 팬데믹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자기 성찰에 대한 질문과 반성을 시작으로 또 다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새로운 작심을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어 있는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코로나 사태 이후 함께 하고 있는 이주민 성도들이 얼마나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고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지금의 우리의 선교정책, 스타일, 방식, 마음가짐 이대로 좋은가?’, ‘새로운 툴(Tool)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을 개발해야 하는가?’ 등 시대의 숙제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러나 이것은 내 질문이다.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럴듯한 내 질문들과 작심만 있고 실천은 없는 반복된 일상을 뒤로 밀고 ‘주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답을 고민해야 한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모든 희망을 집어 삼켰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많은 질문들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동안 보여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나?’, ‘겨우 이렇게 초라하게 끝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셨나?’ 등 여러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질문을 던지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이라”

우리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주님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 그 마음이 진심이냐고 물으신다. 그리고 “양 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돌보라 하신다.

이주민들은 마스크 구입 자체가 어렵다.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같이 제시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갖고 있다하더라도 근무시간에는 외출이 안 되고, 퇴근 후에는 외출을 금지한 회사 방침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대전에 사는 후배가 KF94 마스크 40장을 보내왔고, 평택에서 이주민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의 소개로 마스크 40장을 구입했다. 좌우 대칭이 조금 안 맞는 것, 끈 길이가 조금 다른 것들이지만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포장했다. 아내와 함께 친구들 집으로 찾아가 ‘집 앞 심방’을 통해 전해 주었다. 며칠 후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한 다락방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평택M센터 이주민 성도들이 일은 하고 있는지, 마스크 공급은 잘 받고 있는지 물어오셨다. 그 질문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다. 그리고 KF94 마스크 90장을 보내주셨다. 부활주일에는 안산M센터에서 100장을 지원해주셨다. 아울러 안산M센터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공지가 왔다. 어렵게 버티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남편에게 버림받고 일도 하지 못한 채 8개월 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 자매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 사정을 들은 안산M센터에서 자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셨다. 내 질문을 뒤로 밀고 주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니 양 떼를 먹일 ‘꼴’을 보내 주신다. 작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가 넘친다.

모두가 움켜쥐려고 할 때 성도는 나눔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을 때 교회는 사랑으로 빛나야 한다. 우리의 질문을 뒤로 하고 주님의 질문에 신실하게 답하고 있는 온누리교회가 참 좋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 주님의 양 떼를 먹이는 일, 이웃 사랑을 말 뿐이 아닌 진심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광수 선교사
(평택M센터)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백정 출신 의사와 노비 출신 간호사

선교사와 조선 교회, 가장 소외된 이웃의 곁을 지키다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불가능했거나 아주 많이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한국 근대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한국 근대화의 씨앗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 여성운동과 계몽운동, 상업장려운동과 독립운동 등을 이끌면서 우리 민족의 기적 같은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 아름답고 빛나는 조선의 선교 역사를 분명히 직시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번 순서에서는 의료발전과 더불어 신분제폐지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앞장섰던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 제중원의학교 1회 졸업생들. 2. 에드먼즈 선교사(가운데)와 이그레이스(좌)와 김마르타(우). 3. 에비슨 선교사의 수술에 함께한 박서양.

조선시대 처절하게 소외되고 사람대접 못 받던 계층을 '팔천'(八賤)이라고 했다. 노비, 백정, 무당, 기생, 광대, 승려, 상여꾼, 공장 등이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이들이 바로 '백정'이다. 백정은 호적을 가질 수도 없을 만큼 천대를 받았는데 백정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낸 이들이 바로 서양 선교사와 조선 교회다.

기독교, 신분의 벽을 허물다

백정은 조선 초기부터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평가 받았다. 백정이 사는 마을은 우범지역으로 여겨졌으며 살인이나 강도사건이 발생하면 으레 백정이 범인이겠거니 했다. 백정이라는 말 자체가 욕설로 사용되기도 했다. 세조실록 47권에는 세조 앞에서 조정 대신들이 "너는 백정(白丁)의 손자"라고 모욕한 기록이 남아있다.

새무얼 무어 선교사는 백정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펼쳤는데, 소공동(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에 곤당골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 어느 날 박씨인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 왕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진료를 요청했다. 이때 진료를 받은 박씨가 독립운동가이자 최초의 백정출신 장로 박성춘이다. 사람대접 못 받던 백정이 왕의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았으니 그 감격이 오죽했을까. 그 일로 박성춘과 다른 백정들이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곤당골 교회에 백정들이 많이 찾아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양반들이 교회(3년 후에 다시 합침)를 분리했고, 곤당골 교회는 '백정교회'로 불리게 된다. 박성춘은 1911년 장로 안수를 받는데 2년 후 같은 교회에서 왕손 출신인 이재형도 장로안수를 받는다. 조선역사 500여 년 동안 허물지 못했던 신분의 벽을 기독교가 허물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다.

백정 출신 최초의 서양 의사 '박서양'

1895년 콜레라 이후 조정의 전적인 신뢰를 얻은 에비슨 선교사가 조정에 요구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다. 백정의 면천(免賤)이었다. 면천은 '천민을 벗어나 양민이 된다'는 뜻이다. 당시 백정은 1894년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이 없었다. 에비슨 선교사의 요청대로 백정의 면천이 허용되었고,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 호적에 오른다. 다양한 길이 열린 박서양은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1900년부터 제중원의학교(세브란스의학교의 전신)에 입학한 그는 에비슨 선교사 아래에서 공부한다. 박서양은 제중원의학교에 다니는 동시에 기독청년회 학당과 소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박서양은 6명이 입학해서 3명이 자퇴할 만큼 어렵고 힘든 공부를 마치고 1908년 6월 제중원의학교 1회 졸업생으로 의사면허를 받는다. 국내에서 의사와 교사로 활동하던 박서양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간도로 이주한다. 박서양은 그곳에 교회와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대한국민회 군사령부의 군의관으로 활동하면서 만주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물겨운 조선말 여성들의 삶

"여인의 일상생활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단지 시중을 드는 위치에서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 신부가 표현한 조선말 여성들의 삶이다.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겁탈 위기에 처한 조선의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내뱉던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남성들이 진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협을 그만둘 정도로 겁탈이 횡행했고, 여성들의 인권이 낮았던 시기다. 양반집 여성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전도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당시 여성들은 아파도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기 어려웠다. 남자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버티다 사망한 여성이 있었을 정도였다. 이런 일을 겪은 알렌 선교사는 제중원에 여성의료인 도입을 요청했다. 그런데 조정에서 생각해 낸 방법은 제중원에 기생을 보내는 것이었다. 기생들은 보름정도만 의료관련 일을 했다고 전해진다.

1887년 이화학당을 세운 스크랜튼 선교사가 '보구녀관'을 세워 여성진료를 시작했다. 초대 원장을 맡았던 메타 하워드 선교사가 2년 만에 과로로 귀국할 만큼 환자가 많았다.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소외받던 여성에서 의료인으로 거듭나다

보구녀관에서 간호사 역할을 했던 조선여인들이 있다. 노비 출신인 이그레이스다. 본명은 '복업'으로 노비였는데, 다리가 괴사하기 시작하자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다. 로제타 홀 선교사가 거리에서 죽어가던 복업을 살렸다. 복업은 세례를 받고 이름을 이그레이스로 바꿨다. 그리고 보구녀관에서 의료보조인 활동했다. 그녀는 소량의 물건을 활용하는데 천재적이었다고 한다. 1903년 간호원 양성소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인 의료교육을 받았다. 1908년 이그레이스와 김마르타가 간호원 양성소를 졸업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간호사가 탄생했다. 김마르타도 이그레이스와 마찬가지로 소외된 사람이었다. 김마르타는 남편이 코와 손가락을 잘라 내쳐 갈 곳이 없었던 여인이었다.

이그레이스는 감리교 이하영 전도사와 혼례를 올리고 간호원으로 활동하다 1941년 의료면허를 취득하고 의사가 됐다. 한국 최초의 전문직 여성인 이그레이스와 김마르타의 사진을 보면 얼마나 당당한지 모른다.

조선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질문하게 된다. 교회는 가장 소외되고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 곁에 있어야 한다. 물론 소외된 이웃들의 곁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박성춘이 장로가 되기까지 양반들은 두 번이나 교회를 떠났고, 조선의 여성 환자들은 진료 받는 것조차 힘들었다. 여성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더니 조정에서는 기생을 보냈다. 그럼에도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가장 소외되고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의 곁을 지켰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이강천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청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11:30 301호 / ANEWS예배(영어) 주일 16:0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304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샬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홍숙의 집사(010-3003-5910)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셔틀운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서흔주 선교사(010-3245-0710)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 3째주 수요일 오전 8:30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대상: 문서사역 헌신자(경력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기사, 최종학력증명서
문의: khj@onnuri.org

선교사 숙소 도배 봉사자 모집
내용: 파송선교사를 위한 원룸(1개) 전체 도배
모집: 경험이 있거나 섬김을 원하는 봉사자
일시: 추후 협의
문의: 010-2902-2763

더샘물학교 교직원 채용
채용분야: 사회/역사, 학습지원(~4/20)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tsmca.or.kr)

중고 승합차, 중고 노트북 기증 요청
기증처: 미자립 농어촌교회
물품: 중고 승합차, 중고 노트북 등 사무기기
문의: 서빙고 농어촌선교팀(02-3215-3434)

양 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섭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4세~고등부), 11:00(발달장애인 대학부, 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부(010-7235-0354)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샬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기독교상담학
접수: 4월 20일~27일 17:00까지
문의: 02-570-7381
*www.ttgu.ac.kr 참조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11:30 / 고등부-10: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믿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본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2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 매주 수 오전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9:00
꿈땅(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 3부(청년) 오후 2:00 본당 / 4부(저녁) 오후 7:00 본당 / 북향민 주일 11:00 온유홀 / 다문화 토요일 12:00 온유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영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꿈땅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00/ 11:20/ 13:30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리키즈 오후 13:4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 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온누리교회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니셀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ō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용갑 길혜영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렵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만규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시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삽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븐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기락 김선재 김한국 안사무엘 이우람 신현민 장재원 전병천 정성진 최종현 최대흥 최성규 하성희 하형훈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김기범 김바울 김병철 김세현 김종영 김창성 김혜경 네트라 랜쌤쫄렛스 마주메누룽 민현식 바랏라빌리 박씨마 서수민 싱루아메놈 사가르 이원준 이승윤 이진이 유승덕 윤치연 임선아 제인량 최일관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전도사(파트)**
강정모 고원규 권수진 권은영 권영현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세환 김승겸 김수영 김예드류 김은하 김혜경 김용태 김영신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진성 김주영 김종균 김태영 김태환 김한국 나지혜 니콜 박근명 노동준 노재규 민혜영 박이호 박미애 박소망 박영규 박지수 박찬양 박영우 박유진 박현식 빌 케 서영철 박태훈 백운진 서영찬 서영철 배경자 배승현 송유진 송은애 송유항 송동주 신기한 신대종 신동혁 승소영 양주영 여현구 오현교 신현아 오명도 오준현 오지현 용상은 우승민 윤수빈 윤경선 윤신혁 윤수신 윤슬기 윤지은 윤준석 윤태정 이사무엘 이경건 이경아 이민희 이상관 이상은 이선영 이성광 이세영 이송희 이수호 이승기 이신임 이엘렌 이용민 이웅희 이은정 이은희 이진기 이진수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혁석 이향순 임광명 임노완 임송아 임지성 임정민 장광석 장미숙 장새힘 장윤진 전소리 정순덕 정에스더 정연상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진성희 최규종 최병구 최은영 최선재 최정현 최휘준 표명철 한영철 한용태 허루슬란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의선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원규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성수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백남인 백승웅 박태성 배종수 백낙인 서진봉 백호현 서창희 상병선 서진봉 서관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신현종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염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윤명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용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준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정희태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파터웰디 편무욱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덕종 한종대 한형식 합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용오 황재규 황영옥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구본영 권순형 곽진성 곽희준 권득한 권오섭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금세종 김경돈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민찬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병순 김병욱 김상섭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훈 김종호 김준규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성수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박태성 배종수 백낙인 백승웅 백호현 서창희 서진봉 서관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신현종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염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윤명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용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준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정희태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파터웰디 편무욱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덕종 한종대 한형식 합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용오 황재규 황영옥 강영재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구본영 권순형 곽진성 곽희준 권득한 권오섭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금세종 김경돈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민찬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병순 김병욱 김상섭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훈 김종호 김준규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성수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박태성 배종수 백낙인 백승웅 백호현 서창희 서진봉 서관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신현종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염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윤명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용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준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정희태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파터웰디 편무욱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덕종 한종대 한형식 합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용오 황재규 황영옥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종근 이종우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이종우 이종철 이태열 이태환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이학일 이혜달 이헌규 이홍선 현상준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응화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호림 하성기 하주헌 한갑수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영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종수 마흥규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박지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용규 박정규 손장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신영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서 원 석지혜 송효빈 신은혜 안은경 안은영 안지연 양지연 양현선 염주희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나 이예은 이예진 이혜진 정경미 정다혜 정지은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홍예은 황보승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관수 김철진 김태완 박신웅 송영동 유현복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 이 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 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납 배성우 백도훈 백인호 변범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우윤상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택 이정주 이한규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장제홍 전상현 전흥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지연 조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형훈 한현희 코바야시 메구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Njobvu

◈**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백 학 손진성 손정래 신중수 이광철 이덕한 이문호 이상덕 이상현 이준상 여훈필 장민용 장우진 조규배 조성민 허규회 홍관희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헌식 서인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좌겸 김준걸 김진용 김현희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소천

4/10(금) 서초C 배장원 안수집사 모친상 고 김복자
4/10(금) 하모니 정현애 권사 부군상 고 박응범
4/10(금) 강남C 김선영 성도 모친상 고 고기수
4/11(토) 서초C 박선의 권사 부친상 고 박재모
4/12(주일) 송파A 김석담 성도 모친상 고 김정애
4/12(주일) 영어예배 이은주 성도 부친상 고 이성배
4/13(월) 성동광진 고 양형식 집사
4/13(월) 가정사역 조은주 집사 모친상 고 김명자
4/14(화) 고양은평 홍덕표 장로 모친상 고 노병숙
4/14(화) 분당B 서승원 안수집사 모친상 고 이복임
4/15(수) 영등포구로 박현주 권사 모친상 고 이필출
4/15(수) 동작 서영숙 성도 모친상 고 박순이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 입소, 입교생 모집
내용: 가출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자청소년 쉼터 입소 및 하나로꿈학교(교육청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호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및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찬양, 성경읽기 등 봉사자 모집
문의: 이진욱 복지팀장(031-334-909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 무료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나희 사회복지사(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자 모집
내용: 11:00~14:00 / 점심식사 제공
문의: 김예진 사회복지사(070-7163-24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활동일시: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기엽 팀장(02-703-6011)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재 정

십일조, 감사, 주일 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 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부활절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고

2020년 하반기(8월~12월) 온누리교회 결혼 예배 추첨예약

일시: 5월 13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두란노홀(마스크 필히 착용, 한 팀당 2명 내외 참가 요망)
자격요건: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가능(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타 교회 상관없음)이여야 함).
신청인: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형제나 친척의 대리 예약은 불가함).
준비: 예약금 현금 50만원 및 외부교인일 경우 출석교회 교인확인증명서(온누리교인은 추첨 후 교적확인).
선정방법: 당일 오후 7시까지 참석하신 분들에 한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추첨 후, 순번대로 결혼예배날짜 선점 예약(추첨행사 시작 10분전까지 도착하시기 바라며, 오후 7시 이후 입장 하시면 순번추첨 예약이 모두 끝난 후 접수 받습니다. 당일 결혼 추첨행사 참석 전에 미리 결혼 예배 일자를 2~3개 선정하여 참석 요청합니다.)
문의: 서빙고(02-3215-3179), 양재(02-570-7505)

CGNTV 개국 15주년 특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

3편 우리가 사랑한 마지막 시간

필리핀 박누가 선교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필리핀을 사랑한
박누가 선교사의 기록

본방송 4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재방송 4월 28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

YouTube CGNTV 땅 끝의 증인들 검색

<땅 끝의 증인들>은 CGNTV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배우 소유진



1편 집시를 사랑한 부부
그리스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



2편 바누아투로 간 사나이
바누아투 원천희, 김난주 선교사



3편 우리가 사랑한 마지막 시간
필리핀 박누가 선교사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